

조이스 작품의 원제 번역과 표기에 관한 소론

김길중

지난 해 8월부터 시작된 『율리시스』 월례독회가 목하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다. 조이스 텍스트라면 독회만큼 실속이 있는 두레활동이 또 있겠는가, 학회의 성격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활동 장르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견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 공론이 결국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지루해 질 법도 한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 같다. 계량할 수는 없는 그냥 느낌이긴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참석자들이 누리는 독회의 체험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비롯한 배경 효과 등이 알맞게 섞인 현지 성우의 입체적 낭송을 듣는 것은 그것대로 기본이고, 비유, 숨은 뜻, 함정, 번역, 배경지식, 라이트모티브 등 온갖 곡절에 대해 확인, 해설,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간간이 짜릿한 깨우침의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가블러(Gabler)판의 오류 내지 오판 가능성이 담대하게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지적된 적도 몇 차례 있었다.

이런 쾌적한 순항 끝에 2003년 마지막 달 독회가 지난 13일 있었는데, 그 날은 최석무 교수의 주재 하에 제 7장 “Aeolus”의 막을 열었다. 그런데 이 장명(章名)을 고대 그리스어에 준하여 ‘아이올로스’ 혹은 ‘아에올로스’라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영어어에 준하여 ‘이얼러스’라 할 것인가. 아에 뜻을 좇아 ‘바람의 신’이라고 번역을 할 것인가. 독회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원래의 텍스트를 붙들고 원래의 언어의 장에서 치루는 씨름이지만, 그렇더라도 모국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불똥은 언제나 시대와 지역과 언어의 간격을 넘어 튀게 마련이다. 이것도 일종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글의 표기 문제와 번역의 문제가

종종 도마에 오르게 된다. 앞서 말한 독회가 유독 그랬다.

그 날 공식 독회가 끝나자 이종일 교수는 *Finnegans Wake* 는 『피네간스 웨이크』로 가야 한다, ‘경야 經夜’로 하면 ‘웨이크’의 다의성이 회생된다고 열변을 토하였고, 『피네간의 경야』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은 이름으로 작년에 엄청난 번역사업을 종결한 김종건 교수는 그 각고의 노고에 상응하는 혼신의 확신을 담아, 그렇지 않다, 번역인 이상 번역으로 가야하고, 길이 여럿이면 그중 기본이 되는 의미 하나 잡는 것이 마땅한데, ‘Wake’의 기본 의미는 ‘경야’이다, 그렇게 팽팽하게 주장했다. 논쟁과 의견은 질편하였으나 결론은 없었다. 얼핏 생각하기엔 전체 작품 번역의 복잡한 문제가 아닌 한글화 표기나 용어의 번역쯤이라면 잘 결정해서 모두들 따르면 끝날 일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결정을 잘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그것이 어디 결정을 하고 말고 할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내게는 미리 내린 결론 아닌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는 비록 간단해 보여도 실은 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래에 필자는 조이스 텍스트의 짧은 제명(題名) 몇몇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관찰도 하고 소견도 피력하겠지만, 핵심은 답이 아니고 문제의식이다. 문제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수시로 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 띄워서 세월 따라 저절로 관행의 질서가 잡혀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교육부의 조급한 준칙 선포가 아니라) 표기의 원칙 수립에 관한 당당한 방략일 것이다. 여기 피력하는 한 줌 소회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례의 하나로 읽혔으면 한다.

먼저, 『젊은 예술가의 초상』부터 살펴보자. 최근 고전 번역 평가 작업에 참여한 전은경 교수에 따르면,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국문 번역본은 가지 수가 무려 13종을 헤아린다. 번역본이 그렇게 많은데 제목은 한결같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으로 되어 있다. 놀라운 의견일치가 아닐 수 없다. 일찍이 휴케너 교수가 원제 가운데 ‘as a Young Man’에 숨은 반어적 함축의미를 환기시킨 이후, 사람들은 제목 속에 숨었을지 모르는 엉뚱한 함정을 의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국문제목으로는 그와 같은 복선을 환기하기 어렵다. 그냥 ‘젊은 예술가’라고 하면 원제의 후절반을 ‘젊은 시절의 예술가’라고만 읽은 것이지, ‘미숙한 자로서 예술가’라는 교묘한 자조(自嘲)의 반어법은 놓치는 것이다. ‘as’는 시기(醜)를 지칭

하는 표식인데 아울러 자격을 지칭하여 반어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또 'Young'이 가지는 '어리다' '풋되다'의 의미에서 '젊다'는 말은 아무래도 좀 비켜서 있는 것 같다.

만일 제명을 십인십색으로 번역하여 뜻의 갈래에서 단순한 언어취향의 갈래에 이르기까지, 백화제방(百花齊放)! 멋대로 갔다면, 모두 몇 종류의 번역 제목이 났을까? '젊은 예술가의 초상', '예술가의 젊은 시절 모습', '풋내기 시절의 예술가의 모습', '풋내기 청년 예술가의 모습' ... 등등, 젊고, 풋되고, 청년이고, 미숙하고, 초상이던지, 모습이던지, 아예 'Portrait' 부분의 번역을 하지 않던지, 하는 갈래가 엇섞일 것이고, 여기에 또 운색의 폭이 있고, 그래서 금세 열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점잖은 번역 제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가능태로 상상된 명호(名號)는 「네스터」장에서 스티븐이 하는 역사사색처럼 '쫓겨난 무수한 가능성'(infinite possibilities they have ousted)으로 남을 뿐, 만장일치로 실현된 현행 제목과는 일단 경합하지 않는다. 필자는 경쟁 없이 채택된 (스티븐 식으로 말하자면 '역사 속으로 실현된') 『젊은 예술가의 초상』라는 명호의 정통성을 인정한다. 의미의 심각한 왜곡이 없고,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이미 무언의 합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견이 없는 합의는 사실은 운 좋은 예외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는 달리 *Ulysses*의 국역본은 단 하나 뿐이다. 김종건 교수의 『율리시즈』가 그것이다. 이 제명은 작명의 유래야 원래 있었겠지만, 일단 순수한 고유명사인 만큼 뜻을 번역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순전히 음사(音寫)에 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율리시즈'와 유일하게 경합할 수 있는 대안적 표기는 '율리시스'인 것 같다. '율리시스'는 '율리시즈'보다 특히 조이스 학계 내에서 빈도가 떨어지나, 일반 인문교양물에서도 그 채택 분포가 같은 비율인지, 어떤 경향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속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국내 조이스 관련 글에서는 당장은 김종건 교수 번역의 큰 영향력을 반영하여 '율리시즈'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뒤바뀔 수 있다. 김교수 자신이 장차 3차 개역본을 『율리시스』로 바꾸어 내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쪽이 좀 나아 보이니까.

80년대 중반 경이었을까, 내 자신 어느 무크지에 조이스를 소개하면서 무심코 (그러나 한편 속으로는 확연히 '-즈' 아닌 '-스'를 선호하여) 『율리시스』라 썼더니, 편집진이 결연히 나서서 『율리시즈』로 바꾸어 놓던 기억이 있다. 편집진이 몇 년

후에 등장할 문교부(당시는 아직 교육부가 아니었음) 개정 표기지침을 시대를 앞당겨 적용할 도리는 없었던 것이다. 1992년 문교부가 새로 만든 「외래어의 한글 표기」의 사례에 의하면 ‘Ulysses’는 ‘울리시즈’에서 다시 ‘울리시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김종건 교수가 이 책을 처음 번역하여 ‘대한민국 번역상’을 받은 것은 1968년이었는데, 그 때의 김교수의 책명은 『울리시즈』가 아니고 『울리시이즈』였다. 당시의 나라의 공식 표기지침에 따른 결과였다. 필자에게 남은 기억 속의 인상으로는 그 잦은 외래어 표기지침 중 가장 어설프게 처리된 지침의 피해를 김교수의 68년 번역이 본 것이다. 60년대 제정된 그 지침은 원음의 장음을 (영한사전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은 듯하였는데) 해당 모음 음절의 중첩을 통하여 과잉 반영하던 원음충실주의의 노선을 따랐다. 그 결과 예를 들면 ‘뉴욕’ 혹은 ‘뉴욕크’가 돌연한 문화정책상의 폭거에 의해 ‘뉴우요크’로 징그러운 둔갑을 하게 되었고, 물론, 김교수의 ‘울리시이즈’도 생겨났던 것이다.

이 맹목적 원음추종주의 지침은 현실의 불편을 감당하지 못하고 1974년의 외래어 표기 재개정 때 얼마간 원상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교수는 1988년 내용을 손질하고 제목에서 ‘이’를 슈아낸 『울리시스』 개정판을 1988년 내놓는다. 같은 해에 문교부의 새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다시 한번 나오지만, 다시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은 4년이 더 지난 1992년이 되어서야 나오고, 여기에서 ‘울리시즈’가 ‘울리시스’로 되돌아간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런던을 흐르는 강을 ‘템즈’로 배웠을 터인데, 이것 또한 ‘템스’로 되었다. 나는 이것을 ‘원상회복’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실, 그전 얼마동안 “규정”으로 강제하여 어말의 철자가 ‘-s’이면서 발음이 [-z]인 영어단어를 ‘-즈’로 표기했던 것은 영미위주 과잉원음주의의 결과였는데, 이 ‘-즈’에 관한 한 오도의 기간이 종식했기 때문이다. 그 원리대로 ‘news’를 ‘뉴우즈’나 ‘뉴즈’라고 하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기괴한가. 김종건 교수의 개정 『울리시스』가 조금 더 늦어져서 1988년이 아닌 1992년 12월 27일 이후에 나왔다면, 그래서 범우사 편집진이 새 개정외래어규정을 참고할 수 있었다면, 책이름은 필경 『울리시스』가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도 이를 따랐을 것이고, 따라서 표기법 역사의 악몽은 단축되었을 것이다. ‘울리시스’는 이렇게 해서 역사의 질곡에서 일단 법리적으로는 놓여나게 되었다. 그러나 애시당초 법 없이 그냥 내버려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이스 텍스트의 용어와 표기에 관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지 않은가?

다시, 『피네간의 경야』에 관하여 못 다한 말 한 마디. 앞서 말한 ‘웨이크’인가, ‘경야’인가, 논쟁하는 와중에 ‘경야’가 제대로 된 나라의 말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었다. 자리에 함께 했던 임재오 교수가 그 말은 전부터 쓰던 우리나라의 말임에 틀림없다 하였다. 필자도 그 날 귀가 즉시 네댓 권의 국어사전을 들추어 보았다. ‘경야’는 ‘초상집 밤샘’의 뜻으로 버젓이 올라 있었다. 다만 그 내력이 중국어는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초상집 밤샘’을 ‘수령 守靈’이나 ‘수상 守喪’, 혹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수야 守夜’라 하는데, 1990년대 말 소건(蕭乾)과 문결약(文潔若)이 공동번역한 『율리시스』(尤利西沙)에 딸린 작가해설에서는 『芬尼根守靈夜』라고 살짝 수완을 부렸다. ‘피네간스’의 ‘-스’ 부분을 이런 경우 통상 쓰이는 ‘斯’를 버리고 굳이 ‘守’를 취하여 ‘守夜’와 ‘守靈’을 엮는 웨이크적인 재치를 발휘하고 있다. 필자는 이 조이스 최후의 수수께끼 대작의 제명으로 ‘경야’도 ‘웨이크’도 두루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중국번역과 김교수 번역의 전례에 대한 존중이 은근히 작용하고 있어서 일까, 아니면, 작가 스스로 ‘밤의 책’이라 했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경야’쪽에 마음이 좀 더 내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끝으로, 방금 전에 무심코 ‘웨이크적’이라고 영어식 말을 했는데, 이것이 맘에 꽤 켜진다. 대개의 국내 논문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줄여 쓸 때, 영어로 된 책에서 사람에게 따라 *A Portrait* 혹은 관사 *The Portrait* 으로 하는 예를 따라 『초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필자가 가진 우리말 감각으로는 오히려 전(前)절반을 취하여 『젊은 예술가』로 함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 마찬가지로, 『피네간의 경야』나 『피네간스 웨이크』의 경우는, 짧으니까 안 줄이는 것이 좋겠으나, 굳이 줄인다면 후(後)절반을 취하여 ‘경야’나 ‘웨이크’라 하지 말고 앞부분을 취하여 그냥 ‘피네간’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다. 내 자신도 조금 전에 “웨이크적인 재치”라 하지 말고, “피네간적인 재치” (‘피네간의 경야’에서처럼 ‘스’자를 뺏음)라고 썼어야 했을 것이다. “경야적인 재치”라 했을 때의 어설픈 점이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암시해 주고 있는 듯하다. 마찬가지로, 『더블린 사람들』을 굳이 기어코 약칭하겠다면 (그럴 사람은 매우 드물겠지만) 『더블린』이라고 하는 쪽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낫다. 소위 “영클 찰스의 원리”에 빗대어, 이를 가리켜 의미의 대표성에 관한 “선행어 비교우위의 원리”라 한다면 지나친 예단일까? (*)

(서울대)